

김연경·양효진 공백 못 메우는 女배구... AG·올림픽 참가 우려

스타 선수 부재에 2년째 성장통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국제 대회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연경과 양효진 등 황금세대가 은퇴한 뒤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최종예선에서도 빈틈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세사르 에르난데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 29위)은 6일(한국시간) 태국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린 2023 아시아배구선수권대회 5위 결정전 카자흐스탄(세계 39위)전에서 세트스코어 0-3(24-26 23-25 23-25)으로 졌다.

이날 카자흐스탄전은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다. 앞서 한국은 14개 팀이 참가한 조별예선을 2승1패로 통과해 8강 결선리그로 진출했지만 태국에게 패하면서 준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고 최종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배구가 4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75년 첫 대회부터 4강에 꾸준히 올랐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초로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발리볼네이션스리그 이어 아시아 선수권 부진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는 2년째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일본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에 오르면서 황금기를 맞은 듯 했다. 그러나 4강 진출 주역이었던 배우예제 김연경을 비롯해 미들블로커 양효진과 김수지가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다. 명장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도 한국을 떠나 폴란드 지휘봉을 잡았다.

세대교체를 표방한 한국 여자 배구는 이후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세계 배구 최강국들이 맞붙는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지난해 전패를 경험한 한국은 올해 2년 연속 전패라는 수모를 당했다. 특히 올해는 일부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음에도 한국은 홈 코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12전 전패를 당했다. 2018년 출범한 발리볼네이션스리그에서 두 대회 연속 무승에 그친 나라는 한국

이 처음이다.

김연경과 양효진 등의 은퇴 직후 14위였던 한국의 여자 배구 세계 랭킹은 30위권 안팎까지 떨어졌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김연경의 공백이 컸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동안 한국 여자 배구를 이끌었던 김연경의 공백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김연경 은퇴 후 코트 안 리더가 사라진 점 역시 문제적이다. 승패가 갈리는 분수령에서 결정을 지어줄 스타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기본기와 체력 조건 등 전반적인 면에서 아시아권 팀들을 압도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다.

김연경 은퇴 후 주포로 뛰는 강소휘는 지난 6월 발리볼네이션스리그 경기 후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 수준과 거리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강소휘는 "작년에는 멤버가 많이 교체된 상황에서 처음 VNL 대회를 치러서 전패하고 왔는데 이번에

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차이가 많이 나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강소휘는 한국 여자 배구가 정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리그에서 안일하지 않았으나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배구를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세사르 감독 역시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 수준과 거리가 있다고 털어놨다. 세사르 감독은 "(선수들이) 국제 수준에 적응하는 데 부족하다. 국제 수준에 적응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만났이 드러난 여자 배구 대표팀이 다가오는 2024 파리올림픽 최종예선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참사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폴란드에서 열리는 파리올림픽 예선 C조에서 8팀 중 2위 안에 들어야 내년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한국은 오는 17일 이탈리아 18일 폴란드, 19일 독일, 20일 미국, 22일 콜롬비아, 23일 태국 24

일 슬로베니아를 상대한다.

아시아팀도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계 정상급 팀들을 이기는 쉽지 않아 올림픽 본선 출전 확률은 희박하다. 세사르호가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 한국은 여자 배구가 올림픽 종목이 된 1964년 이후 역대 최초로 올림픽 본선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아시아게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2006 도하 대회에서 5위에 그쳤던 한국 여자 배구는 2010 광저우 대회 은메달, 2014 인천 대회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렐방 대회 동메달을 땀 흘려 얻어냈다. 이번 대회에 17년 만에 다시 노메달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한국은 항저우 현지에서 다음 달 1일 베트남 2일 네덜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 경기를 치른다. 문제는 베트남이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이 패했던 팀이라는 점이다. 아시안선수권 패자팀 아시안게임 예선에서 베트남에 패할 경우 메달로 가는 길이 험난해질 수 있다.

/뉴시스



11월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

3일부터 3일간 태권도원서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가 오는 11월 3일부터 서울 간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품새 오픈 챌린지'는 G4 등급의 국제 대회로 국가대표 부문과 오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가대표 부문 '시니어 종목 남녀 1위' 입상자는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홍콩 2024 WT 품새 선수권 대회' 출전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대회 참가신청은 6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WT GMS 누리집에서 국가대표 부문과 오픈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대표 부문은 국가원이 발행한 공인인증 소지자로 국가협회 별 최대 6명(개인 공인품새 4명, 개인 자유품새 2명)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만 오픈 부문은 국가원 공인인증 소지자 중 12세 이상이 출전 가능하며 개인전, 복식전 및 단체전으로 구성됐다.

특히 해외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대회 기간 중 열릴 품새 세미나에 선착순으로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회 출전 이외에도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품새오픈 챌린지는 2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되는 G4등급 대회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최근 우리 재단은 스포츠이벤트 안경경영시스템(KSSF2021)을 인증 받은 만큼 더 안전하고 더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2023 세계태권도 품새 오픈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T GMS 홈페이지(<https://worldtkd.sportscorpe.com>) 및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https://www.tf.or.kr/tf/main/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전주대 씨름부 전국대회 '승전보'

전국시도대학 장사씨름대회
조운호, 용장급서 우승 차지
단체전에서는 2위에 올라



전주대학교 씨름부는 제37회 전국시·도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용장급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창원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에 출전한 조운호 학생 선수가 결승에서 박성준(경기대) 학생 선수를 밀어치기 기술로 제압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1위를 차지한 조운호 학생 선수는 대한체육회장대회와 중평인삼배대회에 이어 올 시즌 세 번째 1위에 올라 대학부 용장급 최강자로 우뚝 섰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가르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감독님과 코치, 그리고 동료와 전주대학교에 감사드

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운호 학생 선수는 2024년 영암군청 씨름단에 입단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대 씨름부는 단체전에서 동아대와 경남대를 각각 4대 3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 울산대를 4대 2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5판 경기까지 가는 팽팽한 경기 끝에 이집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임종길 감독은 "열심히 싸워준 학생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전남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테니스 꿈나무들 '챔피언' 자리 놓고 열전

전국 주니어 테니스선수권
7일부터 12일까지 순창서



대한민국 테니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순창에 모여 '국내 챔피언' 자리를 놓고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는 제58회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주니어테니스 선수권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주니어 테니스 선수들이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대회로, 연령대(10, 12세부)로 나뉘어 3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우승을 향한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은 매년 50여개에 달하는 국내 및 국제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는 제58회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 가 7일부터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은 물론 그 가족 등이 순창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내구장을 포함해 총 22개 편의 테니스구장을 보유한 순

창군은 지난달부터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유치해 국내 최고의 소프트테니스 메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기자

세계드론제전

2023 남원

WORLD DRONE FESTA 2023 NAMWON, KOREA

2023. 10. 6(금) ~ 10. 9(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주최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남원시

주관 사립법인 대한민국항공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문화나
미래산업도시남원
www.nwexpo.kr